<합격수기>

12학번 김○우

안녕하세요 예비 선생님들~ 글쓰기 앞서 이 합격수기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정도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과정들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컴팩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저의 공부 과정

(1) 초수

: 저는 학부시절 그래도 나름 학점관리도 하고 그나마 잘한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임용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깔짝깔짝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4학년이 되어 선배들과 스터디할 기회가 생겨 같이 공부하면서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숙지부터 시작해서 기본서를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큰 격차에 실망보다는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되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 가서 전공 공부의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익히게 되었고 내년을 준비할 밑바탕을 깔아주었다고 생각해요. 초수는 교육학도, 전공도 너무나도 모자라서 당연히 떨어질 줄 예상했음에도 막상 시험 성적을 보니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2) 재수

: 기본부터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기본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부터 임용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이 스터디 준비하기 벅찼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교육학과 기본서 스터디를 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키웠음에도 실력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죠. 재수 때는 그래도 커트라인에 근접한 점수가 나와서 공부 방향이 틀리진 않았구나! 내년에는 반드시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네요.

(3) 삼수

: 다시 기본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리던 스터디 준비가 2~3일이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는 시간에 뭐 하지?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여 저는 스터디를 더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서 스터디, 문제 만들기 스터디, 유형별 온라인 스터디, 교육학 스터디 등 스터디만 4~5개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숙제를 던져주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수 때보다 시간이 널찍했으며 남는 시간은 기본서를 보는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세 번째 시험만에 드디어 1차를 합격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높은 1차 점수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4) 결론

: 학교 시험공부가 아닌 임용 공부에 최소한 2~3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학부 시절에서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초수, 재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학부 시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학부 기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1) 수업에 집중하자
: 여러분들 앞에는 정말 대단하신 전공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교수님을 십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해석학, 위상, 대수같이 오랫동안 배우는 과목은 길게 교육과정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임용 공부를 할 밑바탕을 깔아두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쳐 나중에 졸업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시간에 쫓겨 학부 시절에 할 수 있는 만큼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위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놓으면 따로 개념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전공에 집중하고 교수님들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2) 복습하자
: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습입니다. 특히 방학 시즌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그동안 배웠던 전공들을 모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3) 공부 방법
(ⅰ) 스터디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신의 풀이와 다른 사람의 풀이를 비교해 보고 서로 간의 피드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스터디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풀이에서 불필요한 부분, 논리적 비약이 있는 부분들은 자신이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터디이기에 스터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ⅱ) 고수에게 자주 질문합시다. 여기서 고수라고 하는 것은 선배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풀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써보고 나서 풀이를 피드백해 주고 첨삭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 엉망진창인 풀이와 깔끔하고 컴팩트하게 쓰여진 고수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서술하는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아주 귀찮아 죽으려고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세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분명 가르쳐주면서 얻어 가는 것이 있기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선배에게 물어보면서 서술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ⅲ)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수를 해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임용 문제가 결국 <u>기본서만 잘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u>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수 때 남는 모든 시간에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복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썼으며 결국 고득점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기본서가 아니라 강사들이 주는 교재를 기본서 삼아 보고 있다면.....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모쪼록 기본서 10회독을 목표로 미친 듯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처음에 1회독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속도가 확 붙습니다~ 또한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볼 때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있을 겁니다.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기본에서 있는 증명 과정, 아이디어 등이 계속해서 사용되기에 깊이 있는 기본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출도 10번은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스터디

(1) 전공 스터디

: 일주일 분량의 계획을 세우고 스터디 시간에는 모여서 해당 단원의 연습문제 풀이 위주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4명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각자 문제를 맡아 칠판에 판서하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였으며 한 번 스터디를 하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방식이었지만 오래 걸리는 만큼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학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1~6월 : 기본서 스터디, 7~8 : 문제풀이 스터디, 9~11월 : 모의고사

문풀 스터디는 최소 1개 가능하다면 2개 강사의 문제를 풀어보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정현민, 김대성 강사의 문제를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면 되나 9월부터는 새로운 것을 많이 하기보다는 해온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자신감을 유지할 만큼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실제 임용 시간에 맞춰 토요일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월부터 스터디 준비하고 남은 시간은 또 기본서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석+복소	해석+미기	대수+선대	대수+정수	위상+확통	위상+이산

7~8월	9~11월
1~2개의 강사 문제	강사 모의고사

* 추가로 수교론은 기본서 암기 + 신은주 문제 해설집 이것만 봤습니다. 신은주 찬양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감도 없었는데 신은주의 모범 답안은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2) 교육학 스터디

: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이 교육학 및 수교론과 같이 암기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암기는 귀찮은 것이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기는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핵심 단어와 내용이 전달될 정도로만 쓰면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붙었던 임용에서도 교육학이 18.34가 나왔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하나 못 맞추어 1점이 감점된 부분을 감안하여보면 실제로 제가 쓴 점수에서는 0.66점 정도밖에 감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스터디 방식 *

: 초수, 재수 때는 이론 스터디를 해보았으나 너무나도 비효율적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론 부분도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요, 안 들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은 어디서 공부하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결론은 교육학 문풀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이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떻게 서술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강사 문제를 풀어보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는 전태련 강사의 문제를 활용했습니다. 이론 부분도 전태련을 보았으며 초심자가 접근하기 가장 쉽게 쓰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범 씨는... 너무 어려워 ㅠ) 강사들의 모범 답안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써가야 하는지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논술형이지 사실 정해진 답이 있기에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할지 생각하면서 쓰셔야 합니다.

* 스터디 예시 *
: 4명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할 분량 20개 정도를 정합니다. 각자 주제를 5개씩 맡아 만들어진 문제에서 해당 주제에 맞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가져온 문제를 제외하고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에 20개 정도씩 했던 것 같네요.
1~6월 까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으며 7월부터는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를 직접 풀어보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서론, 결론을 써 내려가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서론은, 결론은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로 쓰는 것이 가능하기에 자신만의 멋진 멘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과 행복을 연결 지어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

4. 과목별 기본서 및 약간의 팁

(1) 해석학
: 학교 교재인 정동명 책과 바틀 책 두 권을 모두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석학은 정말로 증명 과정에서 쓰이는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증명부터 연습문제까지 모조로 씹어먹어 버리세요!

(2) 복소해석
: 학교 교재인 허민과 강승필 저자의 책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학교 교재로 충분하나 강승필 저자의 책에서 얻어 갈만한 문제들이 조금씩 있기에 강승필 책은 참고용으로 종종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소도 역시 증명 과정들이 중요하긴 하나 문제 풀이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미기
: 미기는 문제를 풀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나 학교 교재인 표용수 교재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용수 저자의 책보다는 '임용 수학 완전정복 미분기하학' (경문사, 저자 : 김영록) 이 책을 추천합니다. 모양연산자 부분은 솔직히 몰라도 문제 풀이에 있어 아무 지장도 없기에 저는 모양 연산자 부분은 과감히 넘어갔습니다.



(4) 대수
: 프렐라이 및 박승안 저자의 교재 두 권 모두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재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수도 해석학과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탐구가 요구되므로 증명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음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정수론 및 선형대수학
: 저는 박승안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조금 가볍게 보기에는 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한번 공부하고 나니까 개념이 착착 잘 정리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수, 선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은 활용하기만 하더라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6) 확통, 이산
: 확통과 이산은 증명을 외우기 보다는 써먹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초확률론과 사범대생을 위한 확률과 통계, 이산은 박종안 저자의 교재를 봤었네요.

(7) 미적
: 미적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큼지막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정리, 라그랑지정리 이런 큰 정리들 위주로요~ 크게 시간을 투자할 과목은 아닙니다.

(8) 위상
: 학교 교재가 참 훌륭합니다. 상위상 부분이 조금 약해서 그 부분은 박대희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학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증명 속 아이디어들이 너무 중요한데 정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점이 높은 과목은 아니니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주 나오는 위상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5. 글을 마치며

: 짧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쉬운 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뎌내고 합격하시면 그 이상으로 값진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함을 담아 공부하시다 나중에 더 큰 빛으로 보상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목대 수교 화이팅!